

번호 08-2

| | | | | | |
|-----------|---------------------------------------|---|-----------------------|-------|--------------------|
| 제 목 | 국문 | 도시지역 여성의 여성 암 조기검진 현황과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 | | |
| | 영문 | Cancer Screening Rates and Factors Associated with Cancer Screening for Women in Urban Area | | | |
| 저 자 및 소 속 | 국문 | 박형근, 이진세 ¹⁾ , 안형식, 구범환 ²⁾ , 김해준, 염용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¹⁾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일반외과학교실 ²⁾ | | | |
| | 영문 | Hyoung-Keun Park, Kun-sei Lee ¹⁾ , Hyeong-Sik Ahn, Bum-Hwan Gu, Hae-Jun Kim, Yong-Tae Yum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on-Kuk University ¹⁾ , Department of General Surgery,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²⁾ | | | |
| 분 야 | 보건관리 (○) 역 학 () 환 경 () | 발 표 자 | 일반회원 () 전 공 의 (○) | 발표 형식 | 구 연 (○) 포스터 () |
| 진행 상황 | 연구완료(), 연구 중(○) → 완료 예정 시기 : 99년 10월 | | | | |

1. 연구 목적

우리 나라 여성 암 가운데 자궁경부암이나 유방암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그런데 자궁 경부암이나 유방암의 경우 조기검진을 통하여 발생 및 사망을 감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나라는 조기검진 참여율이 높지 않다. 지역사회 여성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여성 암 조기검진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여성들의 여성 암 조기검진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 여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여성 암 조기검진 현황과 조기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효과적인 여성 암 조기검진사업을 위한 기초 자료를 구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방법

서울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30세 - 64세 이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추출은 동, 통, 반을 층으로 하는 층화표본추출을 통하여 7개 동에서 767명의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예방적 건강행태 및 의료이용, 건강수준 및 상병수준, 자궁암 검진에 대한 태도, 1995년 1월 1일 이후부터 조사가 이루어진 1999년 6월 말 까지 암 검진참여부와 검진 목적, 검진 받은 기관에 대한 내용이 조사되었다. 사전에 조사내용과 구조화된 조사지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10인의 조사원이 1999년 6월 21일에서 7월 3일까지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조사지를 이용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767명 중 394명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어 응답률이 51.4%이었다.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에 대한 검진참여 현황과 정기적 검진 여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여성 암 조기 검진과 관련된 요인에 대하여 암 조기 검진 유무와 주요 여성 암에 대한 조기검진 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변량 분석을 실시한 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에 대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조사된 394명 중 110명(27.9%)이 1회 이상 유방암 검사(유방촬영 혹은 유방초음파)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1995년 이후 30세 이상 여성 중 1회 이상 유방암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조사대상자중 95명으로 24.1%이며, 1995년 이후 2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유방암 검사를 받고 있는 30세 이상 여성이 3전체 조사대상자 395명 중 10명으로 3.6%를 차지하고 있다. 암 예방을 위한 유방암 검사는 40세 이하 여성에서 선별검사로서 효과가 불확실한 면을 고려하여, 1995년 이후 40세 이상 여성 중 유방암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은 279명 중 77명(27.6%)이며, 40세 이상 여성에서 2년 간격으로 정기적인 유방암 검사를 받고 있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 279명중에서 10명(3.6%)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30세 이상 여성 394명중에서 29(7.4%)명이 자궁절제술을 시행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 365명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궁암 검진을 1회 이상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은 365명 중 246명(67.4%)이었으며, 1995년 이후 1회 이상 자궁암 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227명(62.2%)으로 나타났다. 1995년 이후 불규칙적이지만 2회 이상 자궁암 검사를 받은 사람은 61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자 중 16.7% 이었으며, 2년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자궁암 검진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전체 조사대상자 중 41명으로 11.2%의 여성이 2년 간격으로 자궁암 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4년간 1년 간격으로 매년 자궁암 검진을 받고 있는 여성은 조사대상자 중 31명으로 8.1%의 여성이 매년 정기적인 자궁암 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고찰

본 연구 결과 유방암과 자궁암 조기 검진을 받고 있는 여성의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4년 6개월 동안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방암 검사를 받고 있는 여성은 3.6%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최근 4년 6개월 동안 자궁암 검진을 1회 이상 받은 여성은 62.2%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2년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는 여성은 11.2%에 불과해 자궁암 검진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다.